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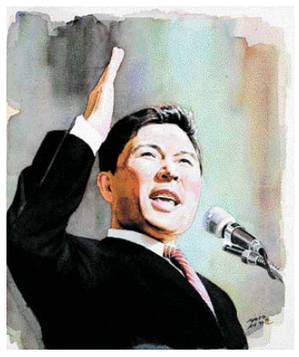
광주 26/31℃ 목포 26/31℃ 여수 25/29℃

단기 4343년 (음력 6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45호 1판 2010년 8월 6일 금요일

신나는 래프팅 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 주최로 섬진강에서 열린 '2010청소년 RCY하계캠프'에서 청소년들이 급류를 타며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적십자단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26㎞의 도보행군과 자전거하이킹으로 심신을 단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그림·서예로 부활



어록을 새긴 서예 작품으로, 일생을 그린 초상화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가 되살아난다.

오는 18일은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 전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고인을 기리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는 '김대중 1주기 추모 어록 서예전'이 열린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등 전국의 유명 서예인 37명이 김 전대통령이 각종 저서에서 밝힌 주옥같은 글귀들을 한자 한자 적은 작품 18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또 서양화가 서기문씨는 김 전대통령의 고교시절 등 생전 모습을 담은 초상화와 풍경화 12점을 선보인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이희호 여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그를 기리는 색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시인 송수권씨가 쓰고 작곡가 김현옥씨가 곡을 부친 '인동초'가 테너 강동명씨의 목소리로 울려퍼지며 '목포의 눈물'이 피아노곡으로 편곡돼 연주된다. 문의 02-720-09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 기반시설 자치구별 편차 심각

전시장 41곳 중 남구 1곳, 광산구는 제로

광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합공연장이나 일반공연장 수는 정체 상태이거나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128곳이었다. 종류별로는 공연시설(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소공연장·야외음악당) 24곳, 전시시설(박물관·미술관·화랑) 41곳, 도서관 18곳,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복지회관·청소년수련시설) 37곳, 문화보급시설(지방문화원·전수회관·전통공예문화학교) 8곳 등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공연시설 2곳, 전시시설 4곳, 도서관 5곳, 지역문화복지시설 1곳 등 12곳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광주시 인구 143만3640명 중 23.92%(34만2936명)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전시시설이 아예 없으며, 공연시설인 일반공연장과 소공연장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광주시 인구의 20.91%(29만9825명)인 서구의 공연시설이 8곳, 광주시 인구의 7.51%(10만7772명)에 불과한 동구의 전시시설이 20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광산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인구의 14.90%(21만3697명)인 남구 역시 일반공연장 2곳, 소공연장 2곳 등 공연시설은 4곳, 전시시설로는 화랑 1곳이 있을 뿐이다.

문화기반시설 총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6만9410명)에 36곳이 몰려 가장 많았으며, 동구 32곳, 서구 30곳, 남구와 광산구 각각 15곳의 순이었다. 동구에는 화랑 13곳과 미술관 5곳이, 북구에는 박물관 6곳과 공연시설 7곳이 집중돼 있었다.

지역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객석규모 1000석 이상의 종합공연장과 3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일반공연장의 수는 지난 2007년 11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되레 줄었다. 대규모 공연장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유일한 종합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경우 전체 대관 신청의 30%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경우 종합공연장이나 일반공연장 등 공연시설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만큼 이를 좁히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시설 명칭	총계	자치구 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총계	128	32	30	15	36	15
공연시설	소계	24	3	8	4	7	2
	종합공연장	1	0	0	0	1	0
	일반공연장	9	0	4	2	2	1
	소공연장	11	2	3	2	3	1
	야외음악당 등	3	1	1	0	1	0
전시시설	소계	41	20	6	1	14	0
	박물관	9	2	1	0	6	0
	미술관	8	5	1	0	2	0
	화랑	24	13	4	1	6	0
도서시설	도서관	18	5	3	4	2	4
지역문화복지시설	소계	37	3	11	4	11	8
	문화의집	5	0	1	0	3	1
	복지회관	22	1	6	3	7	5
	청소년수련시설	10	2	4	1	1	2
문화보급시설	소계	8	1	2	2	2	1
	지방문화원	5	1	1	1	1	1
	전수회관	2	0	1	1	0	0
	전통공예문화학교	1	0	0	0	1	0

민주당 4대강 기조 혼선

강희락 경찰청장 사의 표명

후임 모강인·조현오씨 거론

4대강 사업과 관련, 단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당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대안 제시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입장 제시를 '큰 틀에서 찬성'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도부가 5일 "입장 변화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에 앞장서온 강경론자들은 "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는 전날 준설 최소화와 불필요한 조경사업 중단, 지류·소하천 정비 강화를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금강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한강·영산강·낙동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도 최근 국토해양부로 보낸 공문에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 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에 있다"면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해 대전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의 충북도 역시 "관내 5개 공구가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동검증위를 운영 중이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검증을 끝내고 대안을 마련해 대전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그간의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접고 큰 틀에서 사업 정상추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상황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건설적 의견을 낸 것을 '4대강 사업 찬성'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의 일관된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 4대강 사업 저지특위 이미경 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언론의 오보로 혼선이 빚어졌다"며 "국토부가 잘못 발표한 데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희락 경찰청장이 임기를 7개월 앞둔 5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강 청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내놓은 사퇴서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통령께서 국정 쇄신을 위한 새로운 진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경찰 후진을 위해 조직이 안정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용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치안 공백이 없도록 경찰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의 사퇴 배경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사건과 일련의 아동 성폭행 사건 등에 치안총수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모강인 경찰청 차장, 조현오 서울청장, 윤재옥 경기청장, 김정식 경찰대학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 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축 자율형 사립고 지정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